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바쓰(閥)

우리는 당파싸움으로 점철된 지난 역사의 경험 때문에 파벌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, 일본은 ‘바쓰’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이해관계의 조정에 이용하고 있음

□ 상호 협력을 통한 조직융합

- 현대 일본사회에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무리나 파벌이 곳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
 - 다양한 파벌주의가 수 백 년에 걸쳐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일본에서 바쓰(閥,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배타적 집단)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(明治)시대부터임
 -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바쓰는 기관, 지역, 가족 또는 공통의 지인 등의 인연으로 모여, 기업, 정부, 정당, 출신학교 등에서 배타적 소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
- 바쓰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부자(父子)주의에 근거하면서 고용, 승진, 정치나 거래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지배하게 됨
 - 바쓰의 구성원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하며, 바쓰의 우두머리가 베푸는 은혜에는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게 됨
 - 또한 바쓰의 우두머리는 가부장적인 인애를 구성원에게 베풀 뿐만 아니라 충성을 보일 것을 요구함

- * 이렇듯 바쓰는 가족간의 관계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야쿠자 세계의 오야분(親分)과 고분(子分)간의 관계로 비춰지면서 선후배간의 계급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

□ 오야분과 고분의 위계질서

- 오야분과 고분이라는 말은 일본 현대사회의 특정 집단에서 흔히 쓰이는 말로 인식하고 있으나, 과거 일본의 봉건사회가 남긴 단어중 하나임
- 오야분과 고분은 가상의 설정 즉 오야(親, 부모)와 고(子, 자식)의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로 상호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
- 오야분은 고분의 후배, 행동, 지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야분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고분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적인 충성과 봉사를 함
- 오야분·고분의 관계는 19세기 급격하게 쇠퇴했으나 오야분과 고분이라는 단어는 전통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음
- * 과거 형태 그대로의 오야분·고분의 관계는 야쿠자 세계에 가장 잘 나타나 있으며 한편 아직도 일본사회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집단의 실력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오야분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대부분은 과거 오야분·고분의 관계 설정에서가 아니라 농담으로 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린 것이 아님

□ 일본 파벌정치의 역사

- 일본에서 나타나는 바쓰는 가쿠바쓰(學閥, 학벌), 자이바쓰(財閥, 재벌) 그리고 1945년 패전과 함께 자취를 감춘 군바쓰(軍閥, 군

별)와 같이 접두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

- 이렇듯 바쓰는 교육, 의학, 경영, 공무, 정치 등과 같이 일정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서 많이 나타나게 됨
 - 또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쓰로는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게이바쓰(閥閥, 규벌)가 있는데 처가와 그 친척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파벌로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입신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기도 함
 - 한편 명치유신(明治維新)에 공을 세웠던 사쓰마(薩摩)·초우슈우(長州)·도사(土佐)·히젠(肥前) 등의 번 출신자들이 한바쓰(藩閥)를 만들어 당시의 정치와 군을 장악했음
 - 이렇게 만들어진 한바쓰 정부는 일본에서 정당 내각이 출현하게 되는 1918년경까지 이어졌음
- 바쓰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는 하바쓰(派閥, 파벌) 역시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
- 하바쓰는 거대 조직 속에서 주도권 다툼의 결과 만들어지는 집단으로, 정당, 기업, 노동조합 등에서 주로 나타남
 - 일반적으로 하바쓰라고 하면 먼저 자민당 내의 파벌을 연상하게 되며 자민당에는 총 8개의 파벌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
 - 각 파벌의 목적은 파벌의 수장을 총리대신으로 만드는 것으로 8개의 파벌이 당내에 존재하게 된 것은 1955년 보수합동이라는 당시 자유당과 민주당이 통합하면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지던 때로 거슬러 올라감
 - 합당으로 만들어진 자유민주당에는 통합 전 당파의 잔재가 10개 있었으며 다음 해인 1956년 자민당 총재선거를 계기로 8개의 파

별로 재편되었는데 이를 당시에 이른바 8개사단(八個師團)으로 칭했으며 이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임

- 이렇게 만들어진 파벌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6년에 중의원에서 소선거제를 도입하기까지 지속된 중선거제에 있었음
 -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까지 당선이 되는 제도로 특정 당에서 후보자를 복수로, 자유민주당의 경우는 항상 과반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원에 가까운 후보자를 입후보 시켰음
 - 이 때문에 동일한 당내의 후보가 필연적으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당수를 목표로 하는 당내의 실력자들은 자신의 세력범위를 넓히기 위한 당내 계열화를 추진하여 그 집단에 들어온 입후보자에게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하게 됨
 - 당선된 후보자는 그 파벌의 수장이 총리대신에 선출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파벌은 자연스럽게 특정 업계나 특정지역과 연계하게 됨
- 또한 각료나 국회의 주요 위원장 자리가 점차 파벌의 의원 수에 따라 분배되면서 파벌의 비대화를 조장했으며 파벌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과 각료가 주요 요직에 앉는 일은 드문 일이 되었음
 - 내각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 내각을 들여다보면 몇 개의 파벌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
 - 이러한 내각 안의 파벌 유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신들만의 규칙에 의해 유지됨

- * 가령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선은 해야 한다거나, 몇 선 이하의 당의 요직이 될 수 없다든지 등의 원칙을 가지고 있음
- 따라서 일본정치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스타급 정치인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수 없이 많은 단계를 파벌 내에서 거쳐야만 오를 수 있는 곳이 총리대신임
- 이러한 파벌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기 어렵다는 데 있음
- 점차 개혁성향이 뚜렷한 젊은 일본의 정치세력들의 등장으로 파벌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파벌을 이용해 왔던 각료 사회와 정치세력이 일시에 무너지지 않는 한 파벌주의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